

우리말이 안고 있는 문젯거리

1. 말글 하나 되기

겨레말은 하나일 때가 가장 좋다. 하지만 어느 겨레말이나 거의 입말과 글말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겨레마다 말글을 하나로 만들기에 온갖 힘을 기울인다. 이제 여러 나라 겨레말이 하나로 되어 간다. 입말을 밑바탕으로 삼고 글말은 입말로 바꾼다. 이것이 말글 하나 되기의 바른 길이다. 글말은 잘나고 똑똑한 몇 사람의 말이고 입말은 겨레 모두의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선 글말은 한자말이 그 뼈대를 이룬다. 입말은 겨레의 나랏말이 몸통이 된다. 우리도 말글 하나 만들기에 힘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깥과는 달리 오랫동안 이와는 거꾸로 흘러 온다. 입말을 버리고 글말을 바탕으로 삼는다. 우리말을 버리고 한자말을 키운다. 여기서 바로 우리 말글살이는 길을 잘 못 들게 된 것이다. 우리 말글의 문젯거리는 예나 이제나 입말이 글말을 따라가는 데 있다.

2. 글말 속에서 자라는 기움말

말글살이에서 말소리를 적는 연모인 글자는 저절로 엄청나게 큰 힘을 지닌다. 따라서 우리 글자가 아닌 남의 글자로 말글살이를 할 때는 알게 모르게 본디 우리말보다 쓰는 글자의 나랏말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게 한자말은 한문자의 힘을 빌어 우리말 속에 비집고 들어 온다. 이 남의말은 시간이 흐르면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친다. 끝내 한자말이 입말인 우리말을 제치고 앞으로 나서게 된다.

글말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배운 사람의 말이다. 양반의 말이다. 벼슬아치의 말이다. 나랏말이 아니라 남을 부리는 말이다. 나누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억누르는 말이다. 글말은 어렵고 힘이 있

한 자 말	본디 우리말
흔적(痕跡)없다	~가뭇없다
풍성(豐盛)하다	~걸판지다
안내인(案内人)	~길라잡이
발전성(發展性)	~늘품성
거절(拒絶)하다	~원고개치다
경악(驚愕)하다	~등갑하다
대납(代納)하다	~무리꾸럭하다
시정(是正)하다	~발기잡다
화력(火力)	~불땀
전체로(全體~)	~온새미로
종결(終結)하다	~아귀짓다
기만(欺瞞)하다	~어루뵈다
호객인(呼客人)	~여리꾼
항상(恒常)	~육장
귀로(歸路)	~자옥길
자의(自意)로	~채출물로

다. 남의 말인 한자말은 어렵기 때문에 글말로 안성맞춤이다. 그래서 우리 글말은 한자말이 주인이 된다. 이 다락같이 높은 나리님의 말은 많은 사람의 우려를 받는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산다. 끝내 말글살이의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한자말은 점점 자리를 넓혀간다. 요즘엔 억센 서양바람이 몰아치면서 서양말까지 글말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한다.

문화란 물과 같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마련이다. 문화는 말과 더불어 옮긴다. 우리는 좋으나 굷으나 일본의 회오리바람 속에 휩싸이게 되어있다. 일본말은 높은 문화와 한자말이란 이름을 앞세워 우리를 덮친다. 일찌기 한자말이 중국 문화의 물결을 타고 들어온 것과 비슷하다. 이래저래 우리 말밭은 한자말, 일본한자말, 일본말, 서양말이 우거진 쑥대밭이 되고 만다.



김정섭
(우리말바로쓰기운동모임회장)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는 말은
글말이라야 말발이 선다.
어깨에 힘 주는
사람들의 말씀이 글말이다.
먹물 든 사람도 글말이다.
이렇게 글말 쓰기가 입에 뱀 말버릇은
아무 데서고 그칠 것이 없다.**



3. 엄마말과 방송말

말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배운다. 엄마의 젓꼭지를 물고 엄마말을 듣는다. 엄마가 하는 말을 따라 하게 된다. 겨레말은 그래서 엄마말이다. 겨레말은 할머니에게서 엄마한테로, 엄마한테서 딸에게로 이어진다. 수천년을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 겨레말이다.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딸을 시집보낼 때 주는 선물이 열쇠도 아니고 바느질 솜씨도 아닌 올바른 프랑스말이라 한다.

우리 나라에선 언제부터가 엄마말의 젓줄이 끊어진다. 우리 아이들은 할머니의 옛날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자란다.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 어쩌다 듣게 되어도 귀에 담아두지 않는다.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의 사투리 말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겨레말은 잊혀진다. 어머니 말은 할머니한테서 배운 겨레말이 아니다. 학교, 책, 신문, 방송이 가르친 글말이다. 기음말이다. 이제 겨레말을 알고 가르치는 엄마가 없다. 엄마

구실은 아예 방송에 떠넘기고 어머니는 어린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말도 있다.

옛날엔 엄마가 겨레말을 가르쳤지만 오늘날은 방송이 우리말을 끌고 간다. 말글 가르치는 일만 오로지 한다. 방송의 힘은 엄청나게 크다. 방송에서 나가는 말 한 마디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나라를 뒤덮는다. 옳던 그르던 모든 말글살이의 본보기가 된다. 이 방송에서 쓰는 말이 글말이다. 방송이 우리말을 가르친다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다. 하지만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날이 갈수록 원길로 나가기만 한다. 글말 쓰기는 방송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아니다. 어쩌다 한 번씩 방송에서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길거리나 집에서는 곧잘 입말을 쓰다가도 방송에만 나가면 글말이 된다.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마침내 어린 아이까지 따라 하기에 이른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는 말은 글말이라야 말발이 선다. 어깨에 힘 주는 사람들의 말씀이 글말이다. 먹물 든 사람도 글말이다. 이렇게 글말 쓰기가 입에 뱀 말버릇은 아무 데서고 그칠 것이 없다. 요즘은 집안에서까지 글말을 듣게 된다. 방송에서 가르친 때문이다. 잘못 이끈 까닭이다.

4. 국어 사전

국어 사전은 말글살이의 텃밭이고 기둥이고 잣대다. 사전이 잘못되면 말글살이는 뿌리째 흔들린다. 그런데 우리 국어 사전은 엉터리다. 모든 사전이 한결같다. 먼저 대중말을 들 수 있다. 찬찬히 읽어보면 2십만-3십만 낱말 가운데서 사투리라고 나타낸 것은 기껏 1천-2천 안팎이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모두 표준말이라야 한다. 중국의 “고사성어”도 우리말이고, 일본의 옛 제도 이름도 우리말이고, 일본한자말이나 일본말도 대중말이 된다. 서양말도 우리말이 된다. 우리말일 수 없는 것이 버젓이 우리말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사전마다 다른 대중말이 올라 있는 것도 있다. 뜻을 잘못 풀이한 것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겨레말 사전이 아닌 한자말 사전이라는 데 있다.

오늘날 우리말글이 안고 있는 문제는 많다. 글말이 그렇고 기음말이 그렇고 사전이 그렇다. 표준말이 그렇다. 글자 문제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겨레말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우리말글이 가지는 참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잘못을 알고도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귀찮다고 한다. 이 또한 큰 문제다.